

2024년 정합성 평가서 sample

F6 > '스타일 목록' 확인

스타일

스타일 목록

이름	단축키
바탕글	Ctrl+1
바탕아래0	Ctrl+2
바탕아래9	Ctrl+3
바탕아래12	Ctrl+4
피드백	Ctrl+5
피드백아래0	Ctrl+6
피드백아래9	Ctrl+7
일지제목	Ctrl+8
머리말	Ctrl+9
머리말아래9	Ctrl+0
표지	-
표지설명	-
과업명	-
과업설명	-
차례	-
쪽번호	-

피드백과 인용문 모두
Ctrl+5 '피드백'

+

F6 > '표지'

설탕 한 포대

월평빌라 입주자 이민철 씨 2024년 지원 기록 | 박효진

F6 > '표지설명'

Ctrl+9 '머리말'

차례

차례 내 간격은 '차례' Style로
Enter 1번

F6 > '차례'

인사 글 4

축하 글 5

소개 글 6

가족 — 차례 내 과업은 Ctrl+B로 진하게

올해도 보고 싶은 가족 9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

제가 드릴게요 12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12

6월에 갑시다 13

사과를 해부까 14

연락했습니다 15

민철이 왔어요 16

문 씨 아저씨 17

설탕 한 포대 19

다음 달 22

중요한 일 23

갑니다 24

고향 사람들 25

내년에는 27

1월 1일에 28

신앙(마리교회)

축하 글 부탁 32

새 민철이에게 33

인사드릴 분 34

이번 설에는 양말로 3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6

이번 주일 37

어떻게 축하를 드리죠 38

매주 가 봐야지 40

힘듭니다 42

마리교회 성도 이민철 43

4월에 46

가고 싶죠 47

축의금 좀 넣어 주이소 49

집사님밖에 더 있겠나 50

알아보다 알아보다 53

두 되보다 세 되 54

안 고마운 사람 55

선물을 사부까? 58

추석 잘 보내이소 60

민철이는 61

집사님 소식 62

주거 지원

집들이 66

계약하는 날 68

아플 땐 119 69

배워야지 70

김태준 장로님, 감사합니다 71

김현중 집사님, 감사합니다 73

이제 살 수 있겠다 74

이제 내가 할게요 76

냉장고 78

죽밥과 과자밥 79

사니까 친해지지 80

빈집이 어답니까? 81

거리 85

어떤 방 구하세요? 88

김현중 집사님 아십니까? 91

국밥 한 그릇 93

깨끗하게 95

면도했습니다 96

• 총 2줄 띄우는데

- 첫 번째 줄: '머리말' Style

- 두 번째 줄: '차례' Style



구직

잘리러 갈까요? 100

알아봐야죠 103

형님에게 104

구직 워크숍 105

강점 109

성격은 괜찮지 113

일의 의미 116

직장 탐방 119

1시간 계약직 120

고민해 봤는데 121

감사 글 124

Ctrl+9 '머리말'

인사글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어 한 해 기록을 엮으려 컴퓨터 앞에 앉을 때, 연말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저장된 기록들 읽으며 1년을 돌아봅니다.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올해 있었던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민철 씨와 함께한 계획은 어디 갔는지,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이야기보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기대하지 않던 일로 가득한 기록들 읽으며 이민철 씨가 올해도 자기 삶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해가 거듭될수록 이민철 씨는 자신의 삶을 아주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철 씨 곁에서 열심히 끌려가고 따라가려 노력했습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 최대한 잘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023년 올해도 이민철 씨 책 한 권을 엮습니다.

Ctrl+1 '바탕글'

Ctrl+9 '머리말'

축하글

김현중 집사님의 축하 글 — Ctrl+0 '머리말아래9'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민철인 중년을 바라보고 난 노년을 눈앞에 두고 있구나. 어쩌면 종교적 인연을 빼면 둘이 연결될 아무런 고리가 없는데, 어떻게 민철이와 난 이토록 긴 인연의 끈을 마주하고 있을까?

사람의 관계에 일방통행은 없다. 나는 나대로 철이는 철이대로 나름의 미운 정 고운 정을 쌓아 왔나 보지 뭐. 지금은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잇을만 하면 전화를 걸어 성탄 선물을 묻고 새해 카렌다를 챙기고 가끔은 소액의 금전도 빌려 가며 철이 나름의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사람이 그림다는 걸 전하려는 듯 철이의 아픔을 지우려는 듯 찾고 또 찾아왔었는데. 지난번 통화 때 몇 년간 내가 거창을 떠난다고 말한 이후로 전화를 똑 끊었네. 웬지 미안한 생각이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Ctrl+1 '바탕글'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가게를 운영해도 민철이는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시내 곳곳을 누비겠지. 그래, 철이는 어린 나이에 이미 아버지를 보내고 어머니까지 떠나보내며 혹독한 이별 연습을 했기에 이런 이별이 그다지 어렵지 않음을 안다.

세월이 나를 타향, 저 멀리 인천에 얼마나 잡아 돌지 모르겠지만, 몇 년 뒤 철이를 만나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나를 알아볼 수는 있을까? 그때도 지금처럼 호들갑 떨며 장난스레 나에게 말을 걸어올까?

민철아, 웬지 마음이 짝하네.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 언젠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민철이에게 임해지기를... 인천에서 김현중 집사가.

2023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해가 있겠냐 싶겠지만 올해는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구분 없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을 하루 앞두고 이민철 씨가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고 싶어 했던 박상재 아저씨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박상재 아저씨 집이라 불리던 곳은 이제 이민철 씨에게 내 집이 되었습니다.

이사하고 몇 달은 '상재 아저씨 집'이라 불렀습니다. 입에 배어서인지, 마음이 편해서인지 몇 달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처음 이사한 그곳은 이민철 씨에게 태어나 가장 불편하고 낯선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집에서는 먹는 것, 씻는 것, 입는 것 무엇 하나 이민철 씨 하는 일에 참견하고 도움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저씨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저씨가 없었다면 아직도 이민철 씨에게 그 집은 낯설고 불편한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술, 전자레인지, 청소기, 밀대, 화장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집에 맞게 배우고 변했습니다. 모르는 건 아저씨에게 묻거나 혼자 연습했습니다. 가끔은 친한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험을 물어 배우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이민철 씨가 그 집을 '내 집'이라 부릅니다. 입에 배어서일 수도 있고 진짜 내 집이라 생각되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민철 씨가 '내 집'에 살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민철 씨 모든 삶에, 기록에 배어있습니다.

F6 > '과업명'

가족

'과업설명' Style로

Enter 1번

“그때 아버님이 정말 고마웠는지 설탕 한 포대를 주셨어요. 옛날에는
고마운 사람한테 설탕을 선물했거든요. 근데 한 포대나 주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설탕 한 포대, 부모님을 대신해 졸업식에 가준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고마움의 표시로 설탕 한 포대를 주셨다고 한다. 말은 안 해
도 그때의 고마움을 이민철 씨도 아직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친구들, 원장님, 간사님 덕에 고향 올 맛이 난다. 그 덕에 슬프지 않게
아버지 기일 보낼 수 있다. 다음에는 이민철 씨가 설탕 한 포대를 사
와야겠다.

F6 > '과업설명'

가족

“형님은…” 간간이 이민철 씨에게 형님 소식 전해 듣습니다. 이민철 씨가 소식할 때도 있고 형님이 먼저 안부 물으실 때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매년 계획하지만, 형님 계신 제주도 마음먹은 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더울 때면 덥다고, 추울 때 춥다고, 걱정될 때, 생각날 때 틈틈이 소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왕래하며 살았습니다.

올해 부모님 기일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가는 이민철 씨 표정이 한결 밝고 발걸음은 더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어머니 기일에 진해 이웃들을 찾았습니다. 연락되는 분도 있었고 이제는 그곳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민철 씨를 기억하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버지 기일과 어머니 기일에 이웃들 찾았습니다. 이민철 씨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웃,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까지 안부 묻고 소식하며 지냈습니다. 1년에 두 번이지만, 얼굴 보고 인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덕에 12월, 어머니 기일에는 아주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과 만나 식사하고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이민철 씨 아버지가 고마운 이웃들에게 설탕 한 포대를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마움의 표시로 설탕을 선물했다는데, 얼마나 고마우셨는지 한 포대를 사서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이민철 씨 고향에는 아직도 이민철 씨를 기억하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에는 아직도 이민철 씨가 설탕을 몇 포대 사 가도 모자를 만큼 보고 싶고 고마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각 과업 첫 번째 일지]

제목 드래그 > 서식 > 문단 번호 모양 >

문단 번호 모양: 두 번째 선택 >

새 번호 목록 시작 - 1수준 시작 번호: 1

1. **올해도 보고 싶은 가족** — Ctrl+8 '일지제목'

“이민철 씨, 올해 가족과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요?”

“촌에, 숙모 집에.”

“숙모한테 연락드릴까요?”

“설에 가서 숙모 집에서 자고 올까?”

“일단 설에 얼굴 볼 수 있는지 여쭙볼까요?”

“그래. 숙모 집에 갔다가 삼촌 계신 곳도 물어봐서 보러 가야지.”

Ctrl+1 '바탕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과 같은 이민철 씨의 답에 감사하다. 작년, 계획과 달리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 마음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이민철 씨는 여전히 그렇다.

“형님한테도 연락드릴까요?”

“형님한테는 설에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아, 저번에 통화하실 때 말씀하셨나 보네요.”

“네.”

“이제 제주도는 안 가고 싶으세요? 매년 계획했는데 아직 못 갔잖아요.”

“제주도 가야죠. 놀러 가죠.”

“언제쯤 가면 좋을까요?”

“언제 가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가고 싶으세요?”

“봄에 가고 싶은데.”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네. 하하하.”

“그럼 다른 가족들은 설에 연락해 보고 제주도도 봄에 갈까요?”

“그래요.”

올해도 때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소식 나누기로 했다. 오래 보지 못한 가족들이지만 이민철 씨는 매년 만나고 인사할 계획을 세운다. 보지 못함에 서운하고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 항상 가족 일에는 의지를 가지고 먼저 계획하고 연락한다. 그런 이민철 씨 덕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도 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날짜 표기]
7pt

일지의 끝에 몇 문장, 박효진 선생님의 생각을 담은 글이 참 좋습니다. 올해는 민철 씨가 계획한 일들 모두 이루기를 바랍니다. 임우석
이민철 씨가 종종 이 글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와 같이 말할 때 좋아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말 속에 담긴 어떤 결심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문장에 담긴 사회사업가의 결의와 같은 믿음을 봅니다. 두 분 뜻이 더해져 기쁜 소식에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바라구요. 정진호
‘올해도 보고 싶은 가족’, 제목이 아리네요. 올해는 두루 만나기 소원합니다. 제주도, 경산, 진해... 곳곳에 방문하여 환대받고 인사하며 지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평

[이름 표기]
8pt

[피드백 순서]
팀 외 동료
직급 오름차순 >
팀 간사 >
국장 >
소장

‘바탕글’ Style로 Enter 1번

2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형님한테 나 이사했다고 말했어요?”

[각 과업 두 번째 일지부터]

제목 드래그 >

CSI : Ctrl+Shift+Insert

[마지막 문단]
Ctrl+3 ‘바탕아래’

[피드백]
Ctrl+5 ‘피드백’

“네. 새해 인사 문자 보내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형님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새해 맞아서 형님이랑 연락하셨나 보네요.”

“네, 연락했어요.”

“이사 이야기 나누셨나 보네요.”

“이사했다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들어서 안다고 하시더라고.”

“새해 인사도 나누셨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어요.”

“좋네요. 새해부터.”

작년부터 이민철 씨와 형님 사이의 연락이 잦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때마다 시기마다 안부 나눈다. 올해도 새해 맞아 인사 나눴다고 한다. 이민철 씨는 이사 소식 전했고 형님은 그런 동생 소식 물으러 연락하신 듯하다. 올해도 이민철 씨와 형님이 자주 소식하며 지내길 바란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날짜가 본문 마지막 문단에 모두 들어가지 않고 한 글자라도 내려오면, Enter로 내리고 Ctrl+4 '바탕아래12'**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친척 초대해 집들이하는 날을 꿈꿔봅니다.

임우석

누구라도 떨어져 사는 가족의 안부를 하루 종일 생각하며 살 수는 없지만, 드문드문 떠올리며 지낼 수는 있겠습니다. 이민철 씨의 연락과 소식이 형님에게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간간이 생각나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렇게 살고 있구나’하는. 정진호

형님 소식 반갑고 기쁩니다. 두 분 연락 잦다니 기쁩니다. ‘올해도’, 올해는 소식하고 왕래하며 화목하게 아름답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윤희

3. 빈집이 어덯니까?

“장팔리에 빈집이 2개 있습니다.”

튼금없는 말이었지만, 문득 이민철 씨가 핫김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든, 나와 다른 사람이기에 의견 차이가 생기고 다툴 때가 있다. 이민철 씨도 마찬가지이다. 가끔 그럴 때면 이사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일단 구경만 하는 거예요.”

직원이 이사를 물으면 손사래 치던 이민철 씨가 이번에는 먼저 집을 구경하러 가자 말한다. 당장 이사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구경만 하는 것이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지인이 알려준 집을 구경하러 가기로 한다.



실선 0.1mm
그림 효과 '회색조'

- [이미지 삽입]
1) 고품질 사진을
2) 원본 비율에 맞게
3) 크기만 조절해서
4) '보기 좋게'
넣으면
세부 사항은
전담팀에서 조정

먼저 이민철 씨 아는 형님 집에 도착했다. 형님도 장팔리에 살기에 읍에서 차를 타니 금세 도착한다. 간단히 인사 나누고 알려주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형님 집과 멀지 않은 곳 같은데 갈림길이 많아 찾기가 쉽지

않다.

“혹시 여기 주변에 나온 집 없습니까? 빈집이요. 빈집.”

마침 가는 길에 국수 그림이 그려진 식당처럼 생긴 건물이 있다. 이민철 씨가 들어가 길을 묻는다.

“빈집? 음... 여기 앞에 말하는 건가?”

“내놓은 집입니까?”

“하하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놓은 집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국수 공장이었는지 위생모를 쓴 부부 두 분이 나와 이민철 씨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길 안쪽 집을 알려주셨다.



몇 걸음 가니 작은 회색 주택 뒷모습이 보인다. 골목 앞집 마당에 할아버

지가 계셔 이민철 씨가 빈집이 맞는지 여쭙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물었다. 친절한 할아버지 설명 덕에 헤매지 않고 집으로 들어선다.

집 뒷길을 돌아 앞으로 돌아가니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집으로 들어서니 작은 마당에 신발 몇 켤레, 오래된 연탄보일러와 그 옆에 쌓인 연탄 몇 장이 보인다. 깨끗하지만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이는 집을 이민철 씨가 천천히 둘러본다.

“이 집이 맞나? 이 앞에 집 아닌가?”

“이 집이 맞는 것 같아요. 앞집은 차도 있고 빈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집 차 아니야?”

“이 집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마음에 안 드네.”

“집은 또 새로 찾으시면 되죠.”

“그래. 새로 찾아봐야겠다.”

오늘 본 집은 이민철 씨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그래도 구경만 하러 왔다가에는 아쉬움도 크고 괜찮은 집을 찾고 싶다는 의지도 생겨 보였다. 이민철 씨와 다음에 또 찾기로 하고 마을을 걸어 나온다. 몇 걸음 앞에 걸어가는데 이민철 씨 뒤로 들릴 듯 말 듯 혼잣말이 들린다.

“사려면 1억 7천은 할 텐데. 다음에 보지 뭐. 다음 주에 또 찾아보지.”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동네 이곳저곳, 묻고 걸었네요.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는 과정과 고민이 이민철 씨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전종범

한 사람의
다수 피드백은
원숫자로 구분

① 이날, 이민철 씨와 동행했다 돌아온 박효진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바로 보여 주었지요. 마을을 걷는 이민철 씨 뒷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자취를 꿈꾸었다 번복하기를 몇 번, 이사하고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사고 배우고 망치고, 어느새 혼자 사는 그림을 그려 보기까지... 그 여정을 글로 함께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나 새 희망과 구상, 궁리, 목표는 좋은 거죠. 응원합니다. ② 함께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갈등은 언젠가 따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당사자에게 그러려는 뜻이 있어야 하는 것일 텐데, 서서히 변화가 싹트고 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함께 살며 얻은 것, 감사할 일은 오래 기억해야겠지요. 어찌 되든 당사자 이민철 씨의 때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정진호

이사할 생각까지 하고 민철 씨가 많이 속상했나 봅니다. 신아름

빈집을 향하는 이민철 씨 마음을 헤아립니다. 민철 씨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


 감사글

'안 고마운 사람'이 책의 첫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민철 씨가 이사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고 냉장고를 옮기고, 밥을 먹고 반찬을 사고, 교회에 가고 집을 알아봤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이민철 씨의 자취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고맙게도 어떤 일에도 이민철 씨 곁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한 지인이든, 처음 만난 사람이든 언제나 이민철 씨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걱정과 염려가 무색해질 만큼 이민철 씨는 사람들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민철 씨 보며 정말 주변에 안 고마운 사람이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책의 제목은 '설탕 한 포대'입니다. 예전 이민철 씨가 학교를 졸업하던 날, 부모님을 모시고 졸업식에 함께 가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고마움의 표시로 설탕 한 포대를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저장 곳곳, 이민철 씨가 사는 구석구석 고마운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민철 씨가 살아가는데 안 고마운 사람이 없습니다. 설탕 몇 포대를 선물해도 모자랄 만큼 고마운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 덕에 올해도 이민철 씨가 참 잘 살았습니다. 덕분에 내년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민철 씨 주변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설탕 한 포대

내용만 수정

월평빌라 입주자 이민철 씨 2024년 지원 기록

작성

박효진

인쇄 2025년 3월

발간 월평빌라

편집 월평빌라 정합성 평가서 발간 전담팀

주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웃골길 79

전화 055-945-2640

팩스 055-945-2634